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8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3월 11일 (음력 2월 5일) 월요일

## 전두환 23년 만에 법정 선다...오늘 광주서 재판

### 광주지법,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1996년 내란죄 재판

### “법치주의 국가의 사법 시스템 존중했으면...진정성도 함께” 촉구

1996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11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 아래 전 씨 재판을 진행한다.



“그날의 함성, 들불처럼 타오르라”...여수시 3·1운동 재현 지난 9일 오전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서완식 여수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등 7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3·1독립운동 재현 행사가 열리고 있다.

## 5·18단체 “전두환, 광주법정서 만행 고백·사죄해야”

5·18 민주화운동 단체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1일 형사재판을 받는 전두환(87)씨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10일 “시민 하살로 권력을 훔친 전씨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사죄·참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정춘식 5·18 유족회장은 “전씨는 자신의 만행을 사실대로 말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

을 받아야 한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시대의 책무”라며 “오월 단체는 격양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전씨의 재판을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양희승 5·18 구속부상자회장은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에서 헛기사격이 사실로 드러났고, 진일발당에서도 총탄 흔적이 발견됐는데도 전씨는 회고록으로 역사를 왜곡했다. 진정성을 갖고 광주시민과 오월영랑에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역사와 법 앞에 진실을 말해 죄를 씻길 바란다. 39년 만에 전씨를 법정에 세워 단죄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출발점이다. 전씨가 사죄한다면, 역사 왜곡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로 “전씨는 갖은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국민을 우롱했다. 39년간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는 막연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지난해 기소 이후 5월과 7월·10월·올해 1월까지 수차례 재판 연기 요청과 관할지 다툼,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월 “피고인(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날 11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아울러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의 효력 기간은 11일 까지도다.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이다.

전 씨의 변호인은 최근 검찰에 이번 재판에는 전 씨가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인인 이순자 씨의 법정 동석도 신청했다. 재판장은 전 씨의 연령 등을 고려,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 씨가 이번 재판에 실제로 출석한다면 이순자 씨도 동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차례 연기와 불출석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오던 전 씨의 출석한다는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등 강제조치로 이어질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변 광주·전남 지부장 김정호 변호사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이에 앞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존중했으면 한다”며 “진정성과 함께 재판에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봉우 기자

않고 역사를 왜곡해왔다”며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씨의 변호인은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열리는 재판에 전씨가 출석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는 막연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은홍 기자



출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11일 열리는 사자명예훼손사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최근 “전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 것이다. 그동안 출석을 피한 것이 아니고 독감 등 사정으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씨의 이날 출석에는 이순자 여사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은 이전 재판과 비슷한 수준의 경찰 기동대 80명을 법정과 외곽에 배치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으며 법정 보안관리 인원들도 곳곳에 배치하기로 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입석은 허용하지 않으며 참관 인원도 총 103석(우선 배정 33석·추첨 배정 65석)으로 제한했다. 전직 대통령인 전씨를 경호하는 경찰 경호대 인력은 재판 당일까지 현행 5명을 유지할 전망이다. 관련 인사들의 수배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하필 광주에서 재판을...



나도 같이 갑니다



이런 것만 골라...

**KFS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Fb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주택  
• 매매·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청년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농지지원  
• 청년창업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독특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 문의 전화 1577-7770